**초점** 전북현대 이동국, 불혹임에도 건재함 과시

# ‘보라, 춤추는 건각을’

### 수원 삼성과 10R서 시즌 5호골
### 통산 207번째 골로 역대 최다

전북 현대와 수원 삼성의 K리그1(1부리그) 10라운드가 열린 29일 전주월드컵 경기장. 전반 44분 무렵 전북의 서포터 ‘매드 그린 보이즈(MGB)’를 중심으로 경기장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하나 둘씩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고 스마트폰을 들이대며 손을 흔들었다. 그들의 시선이 쏠린 곳은 그라운드가 아니다. 대기 지역에서 몸을 풀기 시작한 이동국(39)으로 향했다.

이동국은 이날 시즌 5호골을 터뜨리며 전북의 2-0 승리에 일조했다. 8연승을 달린 전북(승점 27)은 2위 수원(승점 7)과의 승점 차를 7로 벌리며 독주 체제를 공고히 했다.

후반 5분 교체로 투입된 이동국은 29분 침착한 오른발 슛으로 수원의 골망을 흔들었다. 자신의 39번째 생일을 자축하는 한 방이었다.

1979년생인 이동국은 우리나이로 마흔, 불혹이다. 어쩌면 운동선수로서 황금기가 끝난 지 오래다. 은퇴 이후를 걱정해야 할 때라는 게 더 현실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동국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9경기에 출장해 5골을 터뜨렸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서도 4골을 넣었다. 후반 승부처에서 조커로 기용되는 상황이지만 전성기 골 감각은 여전하다. 경기당 0.56골(리그 기준)을 넣고 있다.

득점 부문 공동 선두 말컹(경남), 제리치(강원·이상 7골)에게 2골 차로 뒤진 단독 5위다.

이동국은 “공교롭게 그동안 생일을 전후로 경기가 있었던 것 같다. 항상 좋은 결과가 있었다”며 “오늘 아침 식사 자리에서 후배들이 생일을 축하해줬다. 마흔살 축하였는데 위로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었는지 모르겠다”며 웃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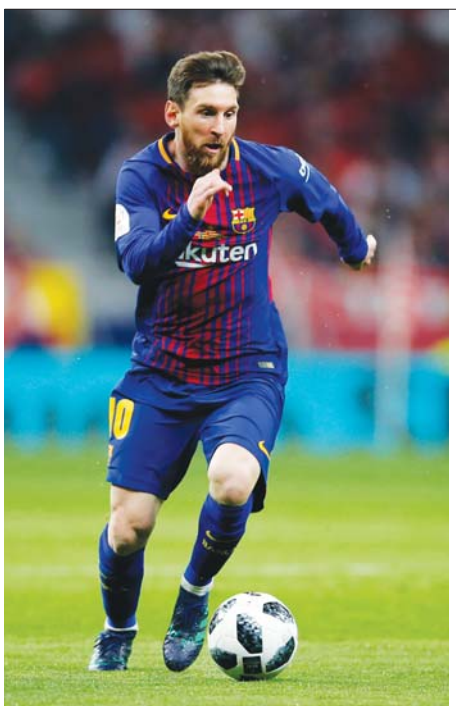
지난해 10골을 넣은 이동국은 역대 최초로 9년 연속 두 자릿수 골을 기록했다. 시즌 전 ‘소박한’ 목표는 두 자릿수 골 행진을 10년 연속으로 이어가는 것이었다.

“작년에 비해서 경기에 뛸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기회를 놓칠 때마다 아쉬움이 훨씬 크다”면서도 “시즌을 치르면 기회는 계속 올 것이다. 월드컵을 전후로 두 자릿수 골에 욕심을 내겠다”고 다짐했다.

“스트라이커로서 득점왕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경기를 하지만 쉽지 않다. 기회에서 반드시 골을 넣어야 한다는 생각이다”면서 “좋은 선수들이 많다. 우선 팀이 승리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자세이기도 하다.

이날 생일 축포는 이동국의 통산 207번째 골(역대 최다)이다. 불혹 이동국의 발끝에서 K리그의 역사가 새롭게 쓰이고 있다. 전북 팬들이 열광하는 이유다. /뉴시스

지난 29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18 프로축구 KEB하나은행 K리그1 전북현대와 수원삼성의 경기. 전북 이동국이 후반전 두번째 골을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 메시 해트트릭… 바르셀로나 25번째 라리가 우승

### 4데포르티보에 4-2로 이겨

FC 바르셀로나가 ‘특급 골잡이’ 리오넬 메시의 해트트릭에 힘 입어 데포르티보 라 코루냐를 완파하며 통산 25번째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우승을 차지했다.

바르셀로나는 30일(한국시간) 스페인 라 코루냐의 리아소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7~2018 프리메라리가 정규시즌 35라운드 원정경기에서 데포르티보에 4-2로 이겼다.

정규리그 종료까지 3경기를 남긴 상황에서 바르셀로나는 26승8무(승점 86)로 무패를 기록 중이다. 2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승점 75)와의 승점 차가 11로 벌어지면서 조기에 우승을 확정했다.

프리메라리가 우승이 확정되면서 바르셀로나는 이번 시즌 코파 델 레이(국왕컵) 제패에 이어 더블(정규리그, 컵 대회 동반 우승)도 달성했다. 메시는 이날 해트트릭으로 시즌 32골을 기록하며 2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24골)와의 격차를 8골로 늘렸다.

메시는 또 2009~2010시즌 34골을 시작으로 7시즌 연속으로 30골 이상을 터뜨린 유일한 선수가 됐다. 호날두도 6시즌에서 30골 이상을 기록했지만 7시즌 연속은 메시가 처음이다.

메시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리그를 우승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다”며 “우리 선수들은 라이벌들보다 더 좋은 경기를 펼쳐왔다. 무패로 시즌을 제패하는 것은 멋진 일이다”라고 말했다.

전반 7분 필리피 코치뉴의 선제골로 앞서 나간 바르셀로나는 전반 38분 리오넬 메시가 추가골을 터뜨리며 경기를 장악했다. 2-0으로 앞서가던 바르셀로나는 전반 40분과 후반 20분에 골을 내줘 2-2 동점을 허용했다.

위기의 순간 승부를 결정한 것은 메시였다. 메시는 후반 37분 루이스 수아레스와 패스를 주고받은 뒤 결승골을 넣은 데 이어 후반 40분에는 쐐기골을 터뜨리며 해트트릭을 기록했다. /뉴시스

## MLB 류현진, 3일 애리조나전서 설욕전

류현진(31·LA 다저스)이 또다시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 선발 출격한다.

다저스는 지난 30일 류현진이 5월 3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체이스필드에서 열리는 애리조나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한다고 밝혔다.

류현진은 올해 5경기에 선발등판해 3승 무패 평균자책점 2.22의 좋은 성적을 올렸다. 다저스 선발투수 중 류현진이 가장 많은 승수를 올렸고, 평균자책점도 가장 좋다. FA를 앞두고 부상 우려를 씻어내고 선발투수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다.

류현진이 올해 애리조나전에 등판하는 것은 두 번째다. 시즌 첫 경기에서 애리조나전에 나섰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 류현진은 지난 3일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3⅔이닝 5피안타 5볼넷 3실점으로 난조를 보였다. 제구력이 흔들리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선발 무용론에 휩싸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부터 승승장구했다.

4경기 24⅔이닝 동안 4점만 내줬다. 특히 22일 워싱턴 내셔널스전에서는 7이닝 2피안타 무실점 피칭을 펼쳤다. 부상 이후 가장 좋은 투구를 선보였고, 선발투수의 입지를 다진 경기였다.

류현진은 달라진 위상으로 다시 애리조나전에 나선다. 애리조나엔 류현진에게 강한 폴 골드슈미트, A.J. 폴락 등이 버티고 있다. 특히 골드슈미트는 류현진을 상대로 22타수 10안타로 강했다. 류현진이 이들을 상대로 설욕전을 펼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다저스는 30일 현재 12승15패를 기록해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4위에 머물러 있다. 매경기 승리가 간절한 상황이다. /뉴시스